

Big Stone's Market Briefing

Market Analyst 강대석

02)368-6165_ ds.kang@eugenefn.com

증시 지표 (7/19일)

지수	종가	전일비(pt)	등락률	YTD	
한국	KOSPI	3,244	-32.9	-1.0%	12.9%
	KOSDAQ	1,050	-2.2	-0.2%	8.4%
미국	Dow	33,962	-725.8	-2.1%	11.0%
	S&P500	4,258	-68.7	-1.6%	13.4%
	Nasdaq	14,275	-152.3	-1.1%	10.8%
유럽	Eurostoxx50	3,929	-107.2	-2.7%	10.6%
	영국FTSE100	6,844	-163.7	-2.3%	5.9%
	독일DAX30	15,133	-407.1	-2.6%	10.3%
	프랑스CAC40	6,296	-164.1	-2.5%	13.4%
아시아	중국상해종합	3,539	-0.2	-0.0%	1.9%
	홍콩항셱	27,490	-514.9	-1.8%	0.9%
	일본닛케이225	27,653	-350.3	-1.3%	0.8%
	대만가권	17,789	-106.0	-0.6%	20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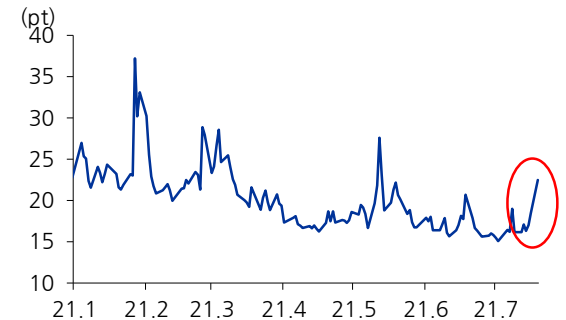
채권 (%bp)	종가	1D	1W	YTD
한국 국고채 10년물	1.977	-4.0	-4.5	25.5
한국 국고채 3년물	1.455	-1.1	6.8	48.5
미국채 10년물	1.189	-10.2	-17.6	27.6
미국채 2년물	0.216	-0.6	-1.1	9.5
장단기 금리차(10년-2년)	97.3bp	106.9	113.8	79.2

환율 및 원자재	종가	1D	1W	YTD
USD/KRW	1,151.91	0.8%	0.4%	6.0%
USD/EUR	1.18	-0.1%	-0.5%	-3.4%
USD/JPY	109.46	-0.6%	-0.8%	6.0%
미 달러 지수	92.83	0.2%	0.6%	3.2%
WTI 국제유가(\$)	66.42	-7.5%	-10.4%	36.9%
GOLD(\$)	1,812.64	0.0%	0.4%	-4.5%
SILVER(\$)	25.18	-1.9%	-3.9%	-4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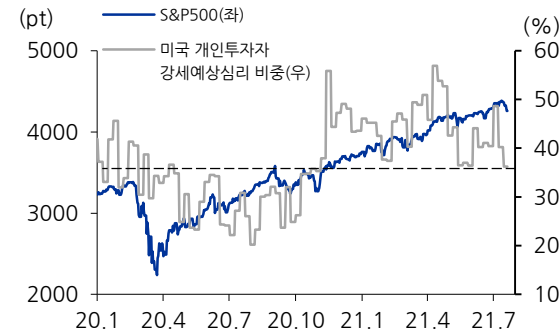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

- 전일 미국증시 주요지수는 모두 하락. 하루 낙폭으로는 S&P500 기준 5/12일(-2.1%) 이후 최대 낙폭
- 이 날 영국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 지속에도 사회적 봉쇄조치를 해제. 유럽 주요증시는 모두 -2% 이상 하락했음
- 미국은 이 날 영국 여행금지단계를 상향. 항공, 크루즈 등 여행 관련 테마의 하락 폭이 컸음. 반면, 원격의료, 비대면, 배달, 식료품점 등의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컨택트 < 언택트의 흐름이 나타남

VIX 지수, 5월래 최고로 급등



주가는 사상최고치 부근, 강세심리는 10월래 최저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- 전미개인투자자협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향후 6개월 증시예상 지표
- 주가지수는 사상최고치 부근인데 반해, 강세를 예상하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음
- 델타 바이러스나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와 더불어 주가가 조정 없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

Today's Keyword “울고 싶은데 맞은 뺨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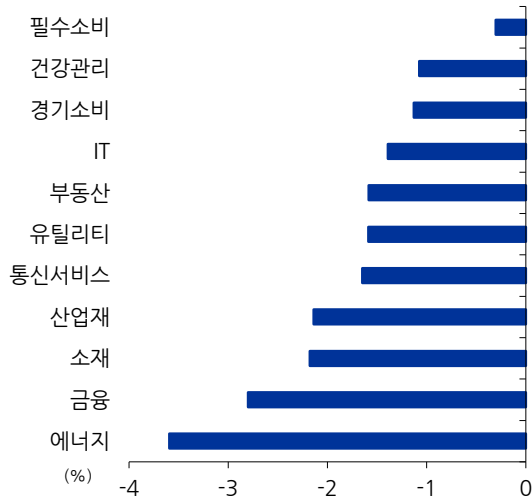
빅스톤이 꿈은 오늘의 키워드는 울고 싶은데 맞은 뺨입니다.

전일 '컨택트 < 언택트'와 같은 해외증시 시황을 살펴보면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도 분명 있었습니니다. 그러나 확산세가 약화된 것은 맞지만,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.

코로나19 확산의 진정보다 경기 둔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PMI나 고용지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것이 울고 싶은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판단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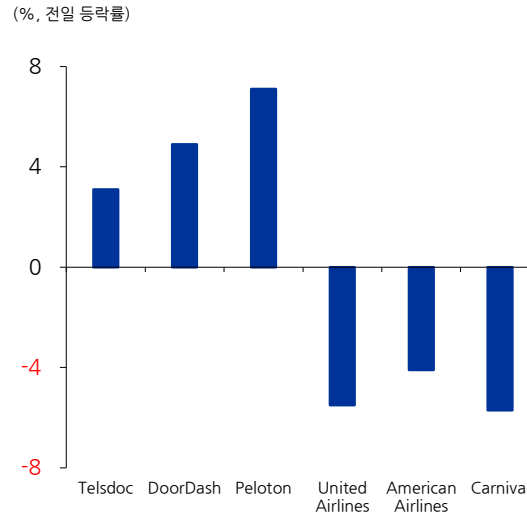
해외증시 특징

S&P500 업종별 등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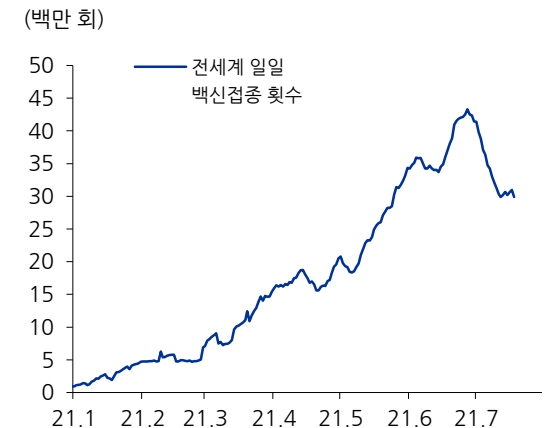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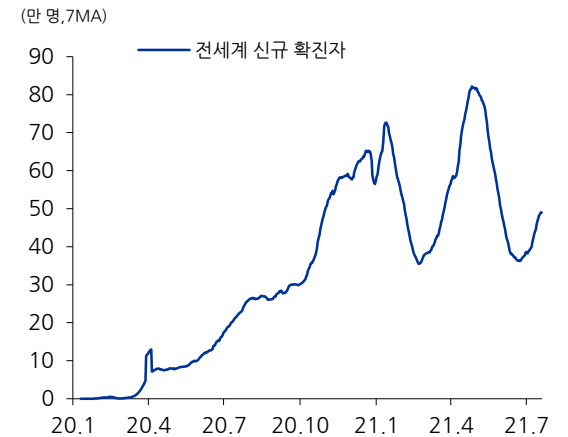
- 전일 미국증시 내 모든 업종이 하락함
- 특히, WTI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OPEC 합의를 반영하며 -7.5% 급락한 데 따른 에너지 업종의 하락폭이 컸음
- 이외에도 금융, 소재, 산업재 등 경기민감주 업종이 지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필수소비, 건강관리 등 방어적 업종은 계속해서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남

해외증시 특징주



- 여행, 항공 등 경기재개 및 '컨택트'와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컸던 반면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('언택트') 관련 종목은 상승했음
- 한편,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로 상승했던 줌(ZM, -2.2%)은 Five9(FIVN, +5.9%) 인수 소식으로 하락함

글로벌 코로나19 현황 점검



KOSPI 현황

KOSPI, 장중 낙폭 만회

개인 KOSPI 순매수 상위

종목명	주가 (원)	등락률 (%)	순매수대금 (억원)
1 삼성전자	79,000	-1.0	3,525
2 SK하이닉스	119,000	-2.1	1,046
3 KODEX 레버리지	28,055	-2.2	618
4 기아	85,800	-1.5	480
5 NAVER	443,000	-0.9	404
6 KB금융	51,100	-2.7	381
7 카카오	154,000	-1.9	344
8 셀트리온	263,000	-2.2	314
9 LG디스플레이	22,800	-1.9	302
10 현대차	227,500	-1.1	294

외인 KOSPI 순매수 상위

종목명	주가 (원)	등락률 (%)	순매수대금 (억원)
1 솔루엠	32,450	12.9	532
2 두산퓨얼셀	50,500	5.1	254
3 한미반도체	36,550	7.7	248
4 금호석유	223,500	2.1	237
5 삼성바이오로직스	916,000	1.9	165
6 SK텔레콤	326,500	1.4	130
7 포스코케미칼	166,500	0.9	82
8 효성첨단소재	586,000	0.5	80
9 고려아연	473,000	-3.3	76
10 KODEX 200선물인버스2X	1,930	2.4	69

KOSPI 업종 동향(% , 억원)

업종명	등락률	개인 순매수	외인 순매수
전기가스업	1.4	-167.2	1.5
통신업	1.1	-162.4	151.5
비금속광물	0.0	2.8	51.4
의약품	-0.1	7.1	-94.5
종이목재	-0.1	28.1	-30.5
음식료품	-0.3	-52.4	-62.9
섬유 의복	-0.3	2.0	-58.4
기계	-0.7	-7.7	122.2
화학	-0.8	549.8	-172.1
제조업	-1.0	7,259.8	-3,516.9
코스피	-1.0	9,357.1	-4,581.9
전기전자	-1.1	4,217.1	-2,255.3
운수창고업	-1.2	199.6	-283.1
서비스업	-1.2	850.3	-113.0
건설업	-1.2	64.9	-50.8
증권	-1.2	12.9	-4.8
유통업	-1.2	281.7	-144.8
은행	-1.4	6.2	-12.5
운수장비	-1.5	1,509.7	-905.7
금융업	-1.5	1,044.0	-661.9
보험업	-1.7	132.0	-72.5
철강금속	-2.3	463.0	-113.5
의료정밀	-2.5	540.3	2.1

전일 KOSPI는 장중 뚜렷한 반등 없이 1.0% 하락한 3,244.04pt(-32.87pt)에 마감. KOSDAQ은 0.20% (-2.15pt) 하락한 1,049.83pt에 마감

삼성전자(-1.0%)와 SK하이닉스(-2.1%)가 7/16일에 이어 지수 하락을 주도. 상승종목이 183개, 하락종목은 679개로 반도체 업종 이외에도 전반적 매도 우위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. KOSPI 22개 업종 중 19개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, 지난 주말 미국증시와 마찬가지로 전기가스(+1.4%), 통신업(+1.1%), 의약품(-0.1%) 등 방어적인 업종이 지수 대비 선방

주가 지수는 부진하고,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2%를 하회. 시장 전반적으로 방어적 성향이 짙어지는 한편, 친환경 관련 업종은 일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감. 국내 장기 금리가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국면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

증시 자금동향

	7/16일(조원)	전일비(억원)	전주비(억원)
고객예탁금	68.9	-4,159	24,051
신용잔고(KOSPI)	13.6	907	846
신용잔고(KOSDAQ)	11.1	444	1,089
미수금잔고	0.4	180	634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